어린이 책꽂이

▲천수만에 겨울 철새 보러 가요=천수만은 1980년대 농지 확장을 위해 갯벌을 매립하면서 너른 농경지와 담수호로 다시 태어났다. 다양한 사진을 함께 실어 천수만의 역사와 자연을 소개하며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철새에 관한 생태정보도 함께 담아 과학과 역사, 문화를 골고루 알게했다. 〈아이세움·9000원〉

▲박순미 미용실='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작가 모임'이 엮은 작품집. 강무지·김남중·김하늘·김해원·박효미·안미란·최나미씨가 쓴 7편의 단편 동화와 최덕규씨의 만화 한 작품이 함께 묶였다. 우리 사회의 곪은 상처를 헤집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간됨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겨레아이들·9000원〉

▲너를 만나 행복해!=일본의 유명 팝아티스트 나라 요시토모의 그림책. 악동 같은 표정의 소녀들을 즐겨 그려온 작가는 치켜 올라간 눈꼬리가 매력적인 여자아이와 빨간 코를 가진 거대한 강아지를 투박한 선을 사용해 재치있게 표현했다. 예술가의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친구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게 다. 〈살림어린이·1만원〉

▲작은 씨=네버랜드 자연 그림책 3권. 작은 씨가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해 가는 과정,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씨를 잉태해 세상 밖으로 보내기까지의 모습을 담았다. 작은 씨의 한살이를 통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순리와 생명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시공주니어·9800원〉

▲산타클로스 이야기='오즈의 마법사'의 작가 프랭크 바움이 아이들이 품을 수 있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질문의 답을 환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냈다. 클로스라는 이름의 성인(聖人)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고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가르쳐 준다. 〈어린이작가정신·1만3000원〉

▲앤서니 브라운의 마술연필=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과 영국에서 열린 그림책 대회에서 상을 받은 꼬마 작가들이 함께 꾸민 아주 특별한 그림책. 뭐든지 그리기만 하면 진짜가 되는 마술 연필을 가진 꼬마 곰을 주제로 펼쳐지는 앤서니 브라운과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기발하다. 〈웅진주니어·1만1000원〉

▲쉿! 박물관에 암호가 숨어 있어요-전통문양으로 우리문화 읽기=조선민화박물관, 숙명여대 박물관, 정영양자수박물관 등이 함께 펴낸 박물관 이해서이다. 우리의 민화와 자수, 도자기에 나타난 전통문양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준다. 전통문양에 대한 설명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글로연·1만2000원〉

▲행복한 훈데르트 바서=오스트리아 출신의 친환경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훈데르트 바서(1928~2000년)의 삶을 소개했다. 평생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훈데르트 바서의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과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해온 과정을 담았다. 〈현암사·1만5000원〉

고독·방황·아픔… 열일곱 힙합 소년 성장기

소년을 위로해줘

은희경 지음

소설가 은희경(51)씨가 5년 만에 신작 장편 '소년을 위로해줘'를 펴냈다. 이번 소설은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네이버 문학동네 카페에 연재한 글을 묶어낸 것이다.

힙합을 좋아하는 열일곱 살 소년이 성장하면서 느끼는 고독과 고뇌, 방황과 아픔을 그린 이야기다. 2005년 '비밀과 거짓말'을 낸 직후부터 쓰기로 마음먹고 꼬박 5년을 붙들려 있었다는, 그만큼 작가가 온 힘을 쏟아 낸 작품이다.

소설은 자기 엄마를 '신민아씨'라 부르는 주인공 강연우의 독백체로 진행되는데, 그 형식과 문체 역시 힙합을 닮아 자유롭고 유연하다.

소설은 '미스터 심드렁'이라고 불리는 연우가 친구 태수와 마리, 채영과 어울리며 벌어지는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다. 또 '웃 칼럼니스트' 로 친구 같은 사이인 엄마와 그의 여덟 살 연하 애인이자 문화평론가인 재욱을 둘러싼 가족 이야기 이기도 하다.

"무난한 것, 중간, 눈에 안 띄는 게 좋다"는 연우는 "싸우는 게 싫다"며 어린 애들에게도 맞고 들어오고, 돈을 뜯기고는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에 엎드려 울던 별 볼일 없는 소년이다. 그런 연우가 태수의 MP3에서 G-그리핀의 강렬한 음악을 듣고 전율을 느낀다. 소설의 제목이자 소설 속에 등장하는 키비(kebee)의 노래 '소년을 위로해줘'이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을 수 있어/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움 말야."(52쪽).

노래를 들으며 연우는 '이건, 내 이야기잖아!'라고 생각하며 힙합 세계에 매료된다. 소설에는 이외에도 '마부' '고 스페이스'(Go Space) '미스터 심드렁' '핑크 폴라로이드' 등 여러 곡의 힙합이 이야기 흐름에 맞게 삽입되어 있다.

그만큼 이번 소설에서 힙합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우와 태수의 우정, 연우와 이채영의 풋풋한 사랑이 싹트고 자라는 데에 힙합은 자양분이 되어 준다.

힙합은 또 연우와 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소설의 주제의식을 대변하기도 한다.

소설에서는 달리기도 중요한 소재다. 혈기방장한 소년들의 달리기는 무작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소요소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재욱 형'에게 달리기를 배우며 인생의 가르침을 얻고, 첫 사랑의 설렘으로 후다닥 달리며,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울면서 마냥 달리기도 한다. 소년성의 표상인 달리기는 일종의 자신의 몸과 사투를 벌이는 수단으로 읽힌다.

이처럼 소설은 '소년을 위로해줘'의 가사처럼 '내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하는 소년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작가의 물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은씨는 '작가의 말'에 "이 소설 속 인물들이 고독하지만 유쾌하고 불안하긴 해도 냉정하기를 바랐다. 그들의 눈에, 우리가 상투적으로 생각해왔던 현실보다 더욱 현실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삶의 모습 같은 게 포착되었으면 했고, 그들만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할까, 뻔뻔스럽거나 엉뚱하게 비칠지도 모르지만 이 세계의 개인으로서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를 보태고 싶었다"고 쓰고 있다.

소설은 소년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조금쯤은 그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한다. 〈문학동네·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수들의 반동 논리와 언어적 패턴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허시먼 지음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분기탱천한 젊은이들이 주변에서 쉽게 듣는, '걱정 반, 냉소 반'의 조언들이 있다. "그래 봐야 되레 역효과만 날 거다"(역효과 명제) "백날 해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무용 명제). 정치 논쟁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말들이 지난 200여년간 사회 변화나 개혁의 요구가 분출할 때마다 보수 사상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반박 '무기'였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앨버트 O. 허시먼(95)이 지난 1991년 발표한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가 번역·출간됐다. 저자인 허시먼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언급한 대표적 비주류 경제학자로 국내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을 넘나들며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두루 인정받는 학자다.

책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성공과 인권선언, 19세기 보통선거권 도입, 20세기 복지국가 수립 등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에서 보수 담론에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던 반동의 논리와 그 언어적 패턴을 분석했다.

저자는 결론격인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에서 주장의 전환을 강조하며 "토론과정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정보의 결과로 처음 가졌던 생각을 수정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격동기를 살아온 '사내' 이야기

바람 나그네

이기원 지음

감정과 이성이 공존하기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사, 그것은 훈훈한 남풍이 불기도 하고 때론 살이 에는 듯한 북서풍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기도 한다.

군사평론가로 활동중인 이기원(53)씨가 일제강점기 이후 사생아로 태어나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한(恨) 많은 '사내'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바람 나그네'를 출간했다.

작가 이씨는 오랜 군 생활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굴곡 많은 인간사를 진솔하고 현실감 있게 그려낸다.

광복 직후 화류계에서 일하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달구의 일생을 담았다. 어머니의 재혼에서 느끼는 결핍, 생업 전선의 팍팍함, 결혼과 이혼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일생 이야기가 마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소설에는 파란만장한 개인사와 더불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역사가 담겨 있다.

일제감정기를 벗어나 6·25 한국전쟁, 격동의 80년대, 90년대 말의 경제공황 그리고 현재의 연속선상인 21세기까지 인생 마라톤으로 달려온 한 사내의 생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삶을 연상하게 한다.

영광 출생인 이씨는 1995년 육군소령으로 전역했으며 수기소설 '남자는 두 번 죽지 않는다'와 에세이 '점 하나 찍고 간다', '아내의 고물 자전거'등을 냈다. 〈한숨·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슴속 내재된 오랜 기억들 표현

랭보는 오줌발이 짧았다

정선 지음

2006년 작가세계로 등단한 정경희(필명 정선·46)씨가 등단 4년 만에 자신의 첫 시집 '랭보는 오줌발이 짧았다'를 냈다.

"탁 탁 타다닥 / 상처가 날개가 되도록 / 存나게 / 누가 나를 때려다오 / 튄다 튄다 콩 콩 튄다"('타작' 전문)

정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가슴속에 내재한 오래 기억과 감각의 충동들을 매우 선명한 물질적 구체성을 갖춰 표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랜 기억 속에 깃들여 있던 '상처'들이 자신의 존재론적 근거를 이루고 있음을 토로하면서, 그 상처들이 은은하게 치유되거나 새록새록 번져가는 이중의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랭보는 탁상에 올라가 오줌을 갈겼다 / 지팡이를 목에 두르고 깃털을 머리에 꽂고 (…) 그가 웃어제낄 때마다 지린내가 진동했다 / 열입곱 나이에 랭보는 예술을 알아버렸단 말이냐"('랭보는 오줌발이 짧았다' 중)

특히 독특한 제목의 표제작을 통해 사랑과 상처, 고통 같은 요소들을 투시한 시인 랭보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시인 처럼 바람을 고쳐 신은 채 결코 가르쳐지지 않는 길을 걷겠노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함평 출신인 정시인은 전남대 국문과를 나와 지난 200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수필 '이장' 당선과 2005년 '에세이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년의 시작·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